

유지투석 혈액 환자에서 생활의 질 평가와 임상 관련 요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¹,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²

진동찬¹, 장경윤¹, 박훈석¹, 김형욱¹, 김용균¹, 송호철¹
최의진¹, 김영수¹, 김영욱¹, 윤선애¹, 김수현², 양철우¹

Quality of Life in Maintenance Hemodialysis Patients and Associated Clinical Factors

Dong Chan Jin¹, Kyoung Yoon Chang¹, Hoon Suk Park¹, Hyung Wook Kim¹
Yong Kyun Kim¹, Ho Chul Song¹, Eui Jin Choi¹, Young Soo Kim¹
Young Ok Kim¹, Sun Ae Yoon¹, Soo Hyun Kim², Chul Woo Yang¹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Medical Colleg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² Medical College Chung-ang University

서론: 신대체요법 환자, 특히 혈액투석환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생존율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 유지 혈액투석환자의 생활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자들은 임상적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활의 질 평가 방법으로 유지투석 환자의 생활의 질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된 요소를 분석하였다.

방법: 대상환자는 연구자들이 치료하고 있는 수도권의 4개 대학병원의 비교적 안정된 유지 혈액투석 환자 165명(남 82명, 여 83명, 당뇨병환자 80명, 비당뇨환자 8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유지 투석환자에 대한 생활의 질 평가를 활동능력 0에서 10점, 정서상태 0에서 5점, 일상생활과 연관된 증상 0에서 10점의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환자 본인 및 보호자를 담당 연구 간호사 혹은 의사가 면담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이와 연관된 임상요소는 기저질환, 혈액학적 지표와 혈액투석 적절도(KtV)등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생활의 질의 종합점수가 좋은 정도는 전체 환자군에서 혈색소, 혈중 크레아티닌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 < 0.05$, $r = 0.31$), 비당뇨 환자에서는 혈중 알부민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5$, $r = 0.40$). 그러나 비당뇨 환자에서 생활의 질 종합점수와 혈중 단백질의 양이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혈액투석 적절도와 정서상태는 모든 환자 군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혈중 인 수치는 비당뇨 환자에서 가려움증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혈액투석 적절도는 종합적인 생활의 질과 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정서상태와는 연관이 있었다. 생활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에는 당뇨와 비당뇨군의 차이가 크며 혈색소, 혈중 크레아티닌, 알부민등의 기저 환자상태에 따른 차이가 크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원 말기신부전 대상 다기관 전향적연구 (A102065)의 일부로 시행되었음.

Key Words: 혈액투석, 생활의질, 투석적절도

Hemodialysis, Quality of life, Dialysis adequacy